

연중 제33주일
평신도의 날

기도서 P. 478 B해

- 제1독서(다 니 12, 1-3)
- 제2독서(헤 브 10, 11-14, 18)
- 복 음(마 르 13, 24-32)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김 봉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①2935)

□ 이 한 해를 보내며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 성 호(야고보)

교구의 사목지침을 <평신도 사도적 활동을 육성하는 해>로 정한 1979년을 보내는 교구 평협회장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어쩌보면 부끄럼기만한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주교구는 평신도의 활동이 컸었습니다. 오랜 박해시절에 사제 한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머무르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 최초의 자치교구로서의 명맥을 지켜오는데도 노력한바가 컸었다는 자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구창설 50주년을 앞둔 오늘, 우리는 다른 교구에 비해 평신도들에 대한 사제들의 두터운 이해와 지도속에 평신도 사도적 운동을 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교님의 깊은 관심과 이해는 금년도의 사목교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한해를 보내는 오늘, <평신도의 날>을 맞아 되돌아 보는 전주교구의 평신도 사도적 활동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솔직히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새싹 가꾸기에 여념이 없는 주일학교 교리교사들, 어려운 여건의 노동현장에서나마 복음정신대로 살고자 애쓰는 가톨릭 노동청년들, 하느님이 주신 땅에서 말씀의 수확을 거두고자 땀흘리며 바빠 뛰던 가톨릭 농민회원들, 밀린 공부 가운데도 하느님의 뜻을 배우자고 모였던 가톨릭 대학생들, 끈질긴 저력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레지오 마리에 단원들, 개미처럼 열심한 방지거 3회원들, 교구평협의 사업에 팔을 걷고 도와주신 가톨릭 약사회원들...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장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독, 교구 평협만이 허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평협 산하의 여러 단체들을 제대로 뒷받침해보려고 했던 소망이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도운동, 특별히 순교자들의 시성시복을 비는 기도운동을 전개해보고자 만들었던 기념목주가 사무실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일이 잘되면 평협 산하단체들을 위한 종합사무실도 하나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빛만 남았습니다. 저희들 잘못도 크죠. 하지만 본당 사도회장님들과 신부님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애타게 호소했는데도 그만 메아리없는 빈소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 일에서 저희는 배운바가 많습니다.

금년도는 교구내 모든 본당이 새롭게 임원을 개편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평신도 사도적이기는 합니다만, 조직사도적을 위해 우리는 대표를 뽑습니다. 우리의 대표로 뽑힌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자기를 바쳐서 희생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협조하는 일이야말로 크리스찬의 의무이고 정신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는 맙시다.

교구평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처럼 좌절을 느끼고 주저앉은 사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었습시다. 감사합니다.

<전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장>

□ 강 린



『산 까치야』

범 영 배 신 부

“산 까치야 어디로 날아가니 너 마저 저 산 넘어 날아가면 우리 님은 언제 오나”라는 노래가 있듯이, 옛부터 우리 어른들은 까치를 좋은 징조로 보았습니다. 물론 까치가 울었다고, 낙엽이 떨어지면 추운 겨울이 되듯이,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징조이지만 앞일을 예견하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즉 先見之明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확실치도 않은 징조들 가지고도 先見之明이 있느니 없느니 왈가왈부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히 닥아온다는 주님의 날에 대한 징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징조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치 아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하게도 주님의 날에 대한 先見之明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先見之明이 있더라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마르코 14, 32)라는 말씀대로 징조로써 온다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잔치집에서 미처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난 사람처럼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일이 닥쳐서야 허둥대야 늦은 것입니다. 항상 有備無患의 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숲 정 이 산책



평신도
영신

□오늘은 제12회 평신도의 날

사권의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책임 다해야

—사도직의 의무는 포기할 수도 무관심하게 살 수도 없어
—하느님 백성의 일치에 의한 협동 봉사에 충실해야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은 제12회를 맞이하는 우리 평신도의 날입니다. 항상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기쁨에 찬 생활을 하시는 교형자매 여러분께 경하드리며 또한 보람된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생활하심을 찬양하여 마지 않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평신도의 날만이 우리들 평신도의 날인 양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사실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를 통하여 1년 365일 전부가 평신도의 날이어야 하겠습니까.

매년 말씀드리는 일이지만 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참된 크리스찬 생활을 하였는가 반성하고, 또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사회 한복판에서 살면서 그를 증거하였는가 자기성찰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과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확립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현대사회의 새로운 과제와 쇄신, 적응을 제기함으로써 새로운 진리를 설정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침을 명시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우리 평신도의 중요한 과제요, 사명이요, 임무일 것입니다.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써 제시하고 사권의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책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인 평신도를 재발견하여 평신도의 축성과 사명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확실히 복음은 행동적인 평신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디서나 깊이 침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회는 평신도의 신분과 그 위치를 중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제4장을 평신도의 장으로 따로 설정하여 평신도의 지위와 사명과 역할을 신학적 차원에서 강조 확정하였으며, 더우기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으로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생활 지침과 규범을 확립하여 우리들 평신도들의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을!

교형자매 여러분, 평신도는 축성된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진정 평신도는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난 10년동안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이를 공부하여 알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들에게 깨달도록 촉구하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연수회 등을 통하여 이를 알리고 교령해설 등 책자로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들 평신도는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 세계 한복판에서 우선 신앙과 생활을 일치 조화시켜 세상의 소금, 빛이 됨으로써 교회의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복음적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혼란된 문제들이 일어나고 중대한 오류가 만연되어 윤리와 질서 더욱 인간사회 자체까지도 근본적으로 뒤엎어 버려진 현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전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느님께서 공동선이 추구되어 정의가 실현되고, 국민의 참된 복지와 향상이 지향되는 세상을 실현시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세계관에 사는 그리스도의 백성을 배놓고 누가 하느님의 기도에 부응할 수 있었습니까? 하느님의 뜻에 맞는 세상을 건설하는 일 즉, 이 세상의 질서를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은 우리 평신도의 손에 맡겨진 가장 귀중한 사도직으로서 누구도 이 사도직의 의무를 포기할 수도 무관심하게 살 수도 없습니다. 그의 의무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로 전하고 더욱 일상생활로 증거하는 복음선교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지난 천교주일에 “복음 선교는 하느님의 말씀과 주원계획에 배반되는 인간의 판단기준, 가치관, 관심의 추경, 사상의 동향, 사상의 원천, 생활양식 등에 복음의 힘으로 영향을 미쳐 바로잡는데 있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종래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안으로 숨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떤 일에도 주재념계 참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교적 결양의 덕이라고 그릇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은 하느님이 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만드는 정열을 내포하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어떤 일인가에 이를 수행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복음선교 즉 사도직을 실천하여 결실을 맺게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난 10월 1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김수환 추기경기행탈 전국 가톨릭 중·고등학교 웅변대회에 나온 나이 어린 연사들의 참되고 애절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르짖음
(3면에 계속)

소비자 보호협회의 금상 획득!

한국 온수 보일러

난방·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공해방지

한국 流 온수 온돌 호남총판

이리 ② 8629 ③4415 군산 ③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전주지점 모집

크로레라一元?

- ★ 약 알카리성 특수 고단백 식물성 영양식품으로 여러분께 건강과 활력을 드립니다
- ★ C.G.F(성장발육 촉진인자)라고 하는 특수 물질이 들어 있어 스테미너 증강, 항균력 배양, 환자의 건강회복, 허약 아동의 발육촉진, 여성의 피부미용에 좋은 약 알카리성 체질개선 식품으로 전국에 걸쳐 널리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학교앞 T.3-2611

이리시 주현동 동사무소앞 T.2-7641

이석구(토마스 아퀴나스) 배상

<2면에서 계속>

은 우리 평신도들에게 크나큰 심금을 울려주었는데 그중에서도 어린 중학생 중에는 다 음과 같은 폐부를 찌르는 구절들이 있었습니다.하는 부르짖음에는 모두가 숙연히 자신들의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복음의 원점에서 성찰하여 누구도 부끄러움을 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대로 우리 평신도들이 세속안에서 참된 하느님의 백성으로 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행동으로 증거하고 전파하여 사회정의가 이루어졌다면 과연 세상 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희망, 슬픔과 번뇌 특히 현대의 가난한 사람 과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도들의 기쁨과 희 망이며, 슬픔과 번뇌이기 때문입니다<사복헌장 1항>.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로잡히고 참 복음적 사회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불의와 부정에 야합하거나 이를 두둔하고 감싸주는 따위의 생각이나 행실에서 벗어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화해의 일치를 이루도록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이가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한다면 이는 곧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 교회안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의 일치를 이루어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형성하여, 인간의 존엄성은 교회 안에서 먼저 실현되어야겠기에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공부하며 꾸준하고 열성적으로 힘써야 하겠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정의없이 사랑없다」라고 현대사회에 외쳤습니다. 우리 는 오늘 평신도의 날을 다시 맞이하면서 다시한번 복음전교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나 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불행하다」라고 한 사도 바울로의 정신이 우리들에게 넘쳐 흐르도록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여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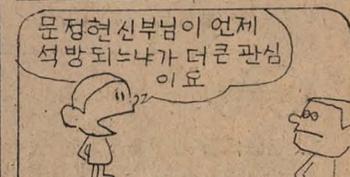
이렇게 하기위하여 우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로부터의 권고 요청에 바탕하여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고 하느님 백성의 공동책임을 다 하려고 애쓰 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하느님 백성의 일치에 의한 협동 봉사에 충실하면 할수록 한국 사회에 빛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 은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사제단과 함께 순례의 길을 용기와 인내와 신념을 갖고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오늘 바치는 헌금은 우리들의 의무와 사명을 완수 하기 위한 귀중한 자금이 되고 또 우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의 생일 헌금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오니 여러분의 자발한 희생으로 기쁘게 봉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 사합니다. 1979년 11월 11일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오늘은 평신도의 날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육성합시다. -全州 教區 平協

요심이 (329) 김병오



□여성 여러분에게
맛을 선사합니다□

송옥의상실

최 춘 자(로스리오)

(이 시계점 옆)

전화 ② 6219

□ 남성의 맛을 드립니다

베드루네 집

(아카데미 백화점 A5호)

안 철 만(베드루)

*교우님들의 아낌에 감사드립니다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결 (축) 혼

육요버 씨 3남 진 수(안드레아) 군
양규철 씨 장녀 현 자(안젤라) 양
(허테레사 씨 장녀)

일시: 1979년 11월 25일 12시

장소: 북자 천주교회

주례: 김종택 신부

★ 꼭 한번 들려주세요

맛사지 전문. 여드름 치료제. 오존
맛사지. 썩점. 제란. 팩

아모레 아카데미 체인점

(아카데미 상가)

최 진 순(테레사)

전화 6-0317

□ 정확 미용학원 학생모집 □

윤 경 미 장 원

(신부회장 및 드레스)

이리시 창인동 구역전 앞

최 윤 경 (유리안나)

전 화 : ② 8653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 보 당 금 방

(금·은·보석·각국시계)

주 이 창 수(바오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③ 8188 (자 ③0369)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평신도의 날 행사 실시 사항 통보는 교구 평협(520 전주시 서노송동 560-6 교구청 내)으로 평신도의 날 행사 실시 사항 통보를 전국 평협(서울)로 해주시라는 공문(10월 30일자 한평 제12호)이 전국 평협회장 명의로 각 본당에 발송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보는 서울로 하지 마시고 전주교구 평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김영구 신부님께서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병실-대학병원 309호실
 3. 제 3회 Open 엠마누엘...11월 18일 오후 2시, 중앙천주교회
 4. 레지오 마리에 꼬미씨움...18일 오후 2시, 전통천주교회
 5. 1980년도 사목교서 연수회...27일<화>
 6. 알차고 멋있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본당신부님이나 교구청에 있습니다
 - ① 이 카드의 판매 이익금은 좋은 일을 위해 쓰여집니다
 - ② 카드가 필요하신 분은 본당신부님이나 교구 평협사무실(4-2935)에 연락하세요(1매 150원...봉투포함)
- 정의 평화를 위한 성금...창인동 천주의 성모 브레시디움 1만원
 군인들을 위한 목주성금...중앙 익명 3천원
 순정이 편집에 참고되는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참조;순정이 10월28일자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용복
3874 보좌 신부 오해현
사도 회장 정태현

1. 성모회: 18일<일> 공식미사 후
 2. 예비자(남자) 특별교리: 매주 월·수요일
장소: 본당신부 사무실 시간: 저녁 8시
 3. 미사시간 엄수하세요
 4. 결혼하실 분은 1개월전에 본당신부와 면담 바랍니다
 5. 제 6주년 근영 창립기념 셀
11월 18일<일> 오전 10시
- 지난주 봉헌금: 275,407원

(노송동)

전화 ⑦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나중열
사도 회장 김성익

1. 신용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저녁미사 후
 3. 교무금 납부의 날: 다음주는 교무금 납부 날입니다 밀린 교무금은 속히 납부합시다
 4. 애령희비 납부 바람: 애령회 회원님들께서는 년도말에 회비를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53,03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전종복
사도 회장 유제상

1. 사도회 확대회: 오늘 미사후 (구역장·반장 임원님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람)
 2. 고백성사 안내: 미사 30분전에 성사를 보세요
 3. 영성체 하실분은 뒤에 마련된 제병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 위령을 위한 기도: 미사후
 5. 주님과 약속한 교무금 납부하고 대립절을 맞으시다
- 지난주 봉헌금: 23,550원 교무금: 170,79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오늘은 평신도의 날: 특별헌금 있음
 3. 추수감사 및 위령합동미사: 25일 공식미사 나누어 드린 봉투에 각 가정에서는 1년간의 많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먼저가신 선영을 위해 합동 미사를 봉헌합시다
 4. 축! 영명 박성팔(안드레아) 신부님: 30일 많은 기도와 협조 바랍니다
 5. 영화상영: 오늘밤(구세주)
 6. 축! 결혼: 24일 11시 본당에서 신랑-조덕현군 신부-허정숙(글라리아)양 25일 12시 본당에서 신랑-윤진수(안드레아) 신부-양현자(안젤라)양
- 지난주 봉헌금: 203,56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1. 부녀주일: 10시미사 후
 2. 80년도 사도회장님 입후보자 명단
기호 I 한형수(베드로), II 정만성(누가), III 조동근(시몬), IV 박장춘(누가), V 김광수(요한)
 3. 80년도 사도회장님 선거: 25일 10시미사 후
 4. 수요기도회: 21일 저녁 8시
 5. 가정방문: 9반-20일, 10반-21일, 11반-22일 12반-23일
- 지난주 봉헌금: 87,610원

(순정이)

전화 ⑦3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도

1. 평신도 주일(강론): 11월 18일
 2. 성모회 월례회: 18일 공식미사 후
 3. 요안회 월례회·신협미사회: 11월 25일
 4. 신축기금 내주신 분: 임귀남·유복환·이상신·신종남·조희연·김중환·강원모·황현모(각 10만원), 전준선·남상용·이용선·이상용(각 20만원), 서석환·김금희(각 5만원), 오창석(4만원), 이탁내·구영심(각 3만원), 이순례(2만원), 덕진동 김상철(2만원), 의인 백남기(1만5천원), 이갑래·이중호(각 1만원), 노점배(1천원), 유치원·정금순(각 20만원), 부녀회(60만원), 김득수(6만원)
- 지난주 봉헌금: 136,180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열
보좌 신부 김기수
사도 회장 유석중

1. 꼬미씨움: 오후 1시30분
 2. 가정방문: 풍남동·경원동-11월 20일~23일까지
 3. 12월 3일 본당 후보 침례행사
주일인 2일날 행사하겠음
 4. 동 대학 성가경연대회: 20명 이상
 5. 신심단체 특기자랑 환영
 6. 공로자 표창
 7. 옥외 운동경기는 일기 참작 실시하겠습니다
 8. 짧은이 성가대 모집
 9. 군인들에게 복주를 보냅니다(연락처: 사무실)
- 지난주 봉헌금: 265,91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채수현

1. 평일 미사시간 변경: 아침 6시30분에서 →7시로 저녁미사 오후 7시30분에서 →7시로
 2. 사도임원님들 예산편성에 감사합니다
 3. 사무장이 부재중이니 사무장이 있을시까지 본당신부에게 연락 바람
 4. 금주 가정방문 있습니다: 화~목요일
- 지난주 봉헌금: 60,085원 교무금: 46,000원